

다큐영화 '니얼굴' 주인공 정은혜 씨

다운증후군 발달장애 삶 그린
다큐멘터리 광주극장 개봉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그림 그리는 '작가' 가장 좋아"
뜨개질 작품 선물할 땐 행복
10일, 서동일 감독과 GV 참여



◀광주극장 로비에 걸린 '니얼굴' 포스터 앞에 선 정은혜 작가와 서동일 감독, 장차현실 PD.(오른쪽부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예쁘고 멋져요”

“제가 그리는 사람들 모두가 예뻐요.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어요. 다 예쁘고 멋져요.”

최근 막을 내린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 역할로 큰 관심을 불러 모은 정은혜(32)씨가 광주를 찾았다.

배우 겸 화가인 은혜씨는 이번만큼은 배우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으로서는 그녀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 개봉을 맞아 광주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관객과의 대화(GV)를 앞둔 은혜씨를 3일 광주극장에서 만났다. 인터뷰에는 은혜씨의 엄마 장차현실 PD와 아빠 서동일 감독도 함께했다.

은혜씨는 이날 초록색 바탕의 흰 꽃무늬 원피스와 빨간 구두, 흰색 스카프로 멋을 냈다. 표정도 한껏 뜬 모습이었다. 그는 요즘 새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당장 이날 많은 시민들이 광주송정역에도 착한 은혜씨를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고 했다.

'니얼굴'은 캐리커처 작가로서의 일상과 그녀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생생히 담아냈다. 은혜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집안에만 박혀 뜨개질만 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 감독은 은혜씨가 동굴 속에 갇혀있었다고 표현한다. 은혜씨 뿐만이 아닌 모든 발달장애인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만의 동굴에서 상상 속의 친구를 불러내 대화하고 싸울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은혜씨를 표현하게 된 건 '그림'을 통해서다. 비언어적 도구인 그림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다. 장 PD와 서 감독은 뒤늦게 이 같은 점을 발견했다. 장차현실 PD와 지난 2007년 '가족식'을 올리고 은혜씨의 아빠가 된 서동일 감독은 '내 곁에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은혜씨)를 카메라에 잘 담

아내면 영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16년 촬영을 시작했다.

은혜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2월 27일. 화실을 운영 중이던 장PD가 집안에만 갇혀있는 은혜씨에게 화실 청소 등 일거리를 맡겼는데 은혜씨가 화실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상상 이상의 그림 실력에 놀랐다.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셈이다.

“애들만 그림을 그리니까 샘이 나서 저도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어요.”(정은혜)

“그 전엔 그저 치료에만 집중해 있었어요. 부모가 없더라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기에 대한 급급했던 거죠. 은혜를 하나의 개성을 가진 존재라기 보단 그저 장애인 딸로만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그림을 보고 놀랐고 기뻐요. 제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였죠.”(장차현실 PD)

은혜씨는 영화 촬영이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책임감이 있게 주문받은 그림을 그리는 데만 몰입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탓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됐다. 그림을 그리면서 배고픔을 참는 게 힘들었다면 힘든 점이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영화는 지난 2020년에 완성됐지만 바로 개봉하지 못했다. 은혜씨의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때문. 노희영 작가는 드라마상의 설정을 철저히 숨겨져길 바랐고 가급적 드라마 방영 종료시점까지 은혜씨가 노출되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을 전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가 나오자 은혜씨의 눈빛이 반짝였다. 드라마 촬영은 특별한 연습보단 현장에서 배우들과 맞춰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상업드라마에 발달장애인이 출연한다는

것이 걱정됐지만 배우들은 물론 촬영스텝들 모두 은혜씨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지민 언니랑 김우빈 오빠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본인 주연의 영화와 TV드라마까지 출연했지만 은혜씨는 누가 뭐래도 '그림'이 가장 좋다고 했다. '작가'라는 호칭 역시 가장 좋아한다. 은혜씨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서 20명 동료 화가들과 그림을 그려 월급을 받는 '예술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지금이 가장 그림 그리는 게 즐거운 때라고 했다.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회식도 하며 자신만의 화실까지 갖춘 지금 말이다. 오는 8월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연다.

은혜씨는 인터뷰 내내 뜨개질을 멈추지 않았다. 동굴 속을 나와 뜨개질을 멈춘 줄 알았지만,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달리진 점이 있다. 과거엔 아무런 의미 없이 실을 엮었다면 이제는 뜨개질에도 의미가 생겼다.

선물할 사람이 생기면 실을 엮는다. 은혜씨는 연두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층층이 짜인 목도리를 누구에게 선물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양평시 설에서 일하는 김병만씨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목도리”라고 했다.

은혜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GV 행사에 참여했다. 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가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의 관객들이 찾았다. 평소 광주극장 관람인원에 4~5배 이르는 규모다. 이날 GV는 은혜씨 특유의 유쾌함과 당찬으로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은혜씨는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리는 GV에 서동일 감독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2017년 6월 11일
선화, 미해, 구리, 영도, 만숙님
은혜

1



2

1 정은혜 작가가 그린 캐리커처 작품.(영화 '니얼굴' 스틸컷)
2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 장면. 정은혜 작가는 극중 배우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역을 맡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유대와 동행'

7~26일 은암미술관·무등갤러리...광주·북경 등 작가 33명 참여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다. 정치, 경제 분야 등과 마찬가지로 문화계 역시 두 나라의 수교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이 진행돼 왔다.

두 나라의 다양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유대와 동행'전이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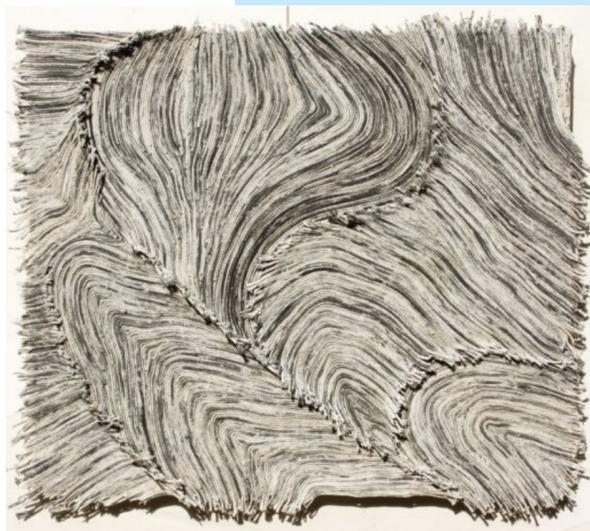
7일부터 26일까지 은암미술관과 무등갤러리에서 동시에 열린다. 지난해 중국 충칭 작가들을 초청, '기억(記憶)과 유대(紐帶)'전을 개최했던 은암미술관이 중국 서남대학교 미술대학, 충칭친구문화전파유한회사법인과 공동 주최한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 작가 16명과 북경, 상하이, 충칭에서 활동하는 17명 등 모두 33명의 작품을 초대해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장르 역시 회화, 사진, 공예, 설치, 미디어아트 등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1부 '문화로 나는 우정'에는 그동안 양국이 문화교류를 통해 진행했던 초대전, 기획·특별전 참여 작가들을 초청했다. 작품 세계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중견작가들을 중심으로 대형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2부 '미래를 여는 동행'은 각 도시가 운영하는 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의성을 선보이며 한창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한국 작가로는 강운·김상연·박소민·박정용·서기문·신호윤·윤남웅·윤일권·이승하·이이남·정광희·정예금·표인부·하루.K, 허진·황영성 작가가 참여했다. 중국 작가로는 베이징의 리강, 왕거평, 류양, 모앤양, 장차이 등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을 초대했다.



표인부 작 '바람의 기억'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의 활동 도시가 항일 투쟁의 역사적 장소와 중첩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상하이는 191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후 독립운동의 구심 역할을 했던 곳이며 충칭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할 때까지 활동했던 장소다. 특히 현대미술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북경과 상하이에 이어 문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충칭의 현대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4시 은암미술관에서는 전시 관련 학술 세미나도 열린다. 전시 개막식 7일 오후 3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른의 풍부한 울림'

김옥길 독주회, 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호른리스트 김옥길

호른리스트 김옥길이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Circus of Sound'라는 주제로 호른의 풍부한 울림과 서정적인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옥길은 호남예술제에서 1위 없는 동상을 수상하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일반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체코 프라하 음악원 디플롬 과정을 수학

하고 이태리 노르마 시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김옥길은 풍부한 연주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탄탄한 레퍼토리와 개성있는 음악적 해석을 가진 연주자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쇼팽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벨리베의 '스케르쾨', 키르히너의 '세 개의 시', 파가니니의 '카프리시 No.24', 라이네케의 '노르노', 한국 초연인 호로비츠의 '서커스 모음곡' 등이 연주되며 금관앙상블과의 화려한 무대가 공연장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피아노 김민주, 트럼펫 배재혁·전보영, 트럼본 류재현, 튜바 김진철이 함께한다. 공연 문의 010-8121-3344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모앤양 작 '아름다운 생활 16'